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연준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 하락. 6월 생산지물가는 상승세 둔화
 - 연준 베이저북, 경제활동 증가했으나 물가상승 징후로 향후 전망은 다소 회의적
 - EU, 對美 강경 대응 의견 확산. 일부에서는 '반강압조치' 검토 주장
 - 일본과 캐나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난항. 관세 회피가 어려울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트럼프의 연준 의장 교체설 부인. 6월 생산지물가 둔화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 축소, 은행주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주 약세 등으로 0.6%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 일부 완화 등으로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0.7%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 감소, 금리안하 기대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3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84.8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7.4원, 0.1% 상승). 한국 CDS 강보합

		7/16일	7/15일	전일대비			7/16일	7/1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263.7	6,243.8	+0.32%	국채 금리 10y	미국	4.46%	4.48%	-3bp
	유럽	541.84	544.95	-0.57%		독일	2.69%	2.71%	-3bp
	중국	3,503.8	3,505.0	-0.03%		영국	4.64%	4.63%	+1bp
	일본	39,663	39,678	-0.04%	CDS 5y	한국	25bp	25bp	+0bp
	한국	3,186.4	3,215.3	-0.90%		중국	46bp	47bp	-1bp
환율	달러지수	98.28	98.62	-0.34%	위험 지표	EMBI+	-	358	-
	유로화	1.1641	1.1601	+0.34%		VIX	17.16	17.38	-1.27%
	엔화	147.88	148.88	+0.68%		WTI유	66.38	66.52	-0.21%
	위안화	7.1785	7.1825	+0.06%	원자재	구리	549.7	554.6	-0.89%
	원화	1,385.7	1,380.2	-0.40%		금	3,347.1	3,324.6	+0.6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ì.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연준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 희박. 6월 생산자물가는 상승세 둔화

-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해임을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그럴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강조. 최근 NYT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해임 의사를 피력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주요 장기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이후 장기 국채금리는 하락 전환
- 이번 상황은 금융시장이 연준 파월 의장의 해임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보여준 신호로 평가. 특히 파월 의장 해임은 연준의 독립성 훼손을 의미하기에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NAM). 다른 일부에서는 장기 측면의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단기 측면의 금리인하 전망을 고려하면 향후 수익률곡선의 '스티프닝(steeptening)'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TD securities)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관련하여 교역 규모가 작은 국가에는 1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관세 서한은 150개국 이상에 보낼 것이라고 발언. 아울러 3개의 암호화폐법 통과를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했다고 밝히며, 하원에서의 해당 법안 승인을 자신
- 한편, 이날 발표된 6월 생산자물가(P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2.3%, 0.0%로 전월(각각 2.7%, 0.3%) 및 예상치(각각 2.5%, 0.2%) 대비 낮은 수준. 근원 P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 역시 2.5%, 0.0%를 기록, 모두 예상치(각각 2.7%, 0.2%) 하회하면서 전월(각각 2.8%, 0.1%) 대비 둔화
- 이번 결과는 상품 부문의 비용 증가가 서비스 부문의 감소로 상쇄되었기 때문. 시장에서는 서비스 부문 비용 증가가 본격화되지 않으면 연준이 큰 부담 없이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평가. 이에 금리인하 기대가 다소 높아졌고, CME의 FedWatch도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소폭 상향(54.4%→56.2%)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Goldman Sachs와 Morgan Stanley, 2/4분기 이익은 트레이딩부문 호조로 증가

- Goldman Sachs과 Morgan Stanley의 2/4분기 주당순이익은 10.91달러, 2.13달러로 전년비 각각 22%, 8.7%증가. 이번 결과는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트레이딩부문 및 투자은행부문의 호조 등에 기인

■ 연준 베이지북, 경제활동 증가했으나 물가상승 징후로 향후 전망은 다소 회의적

- 최근 몇 주 동안 경제활동이 증가했으나 기업들은 관세 인상 영향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전망도 중립에서 다소 회의적으로 조정. 또한 이민 노동자의 부족에 따른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 한편 이날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는 현행 금리의 유지를 지지하며, 최근 물가가 상승한다는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

■ EU, 對美 강경 대응 의견 확산. 일부에서는 ‘반강압조치’ 검토 주장

-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회원국 가운데 미국이 계속해서 30%의 관세를 주장하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 특히 프랑스 등의 일부 국가는 ‘반강압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제3국이 EU 회원국에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 발동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반강압조치의 사용은 시기상조라고 지적

■ 영국 6월 소비자물가, 예상치 상회. 인플레이션 우려에 8월 금리인하 불투명

-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6% 올라 예상치(3.4%) 상회하며 전월(3.4%) 대비 상승세 강화. 시장에서는 그 동안 영란은행의 단계적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이번 결과로 실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평가(CBI)

■ 일본과 캐나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난항. 관세 회피가 어려울 가능성

- 일본 주요 언론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서한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양국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 캐나다의 경우도 카니 총리가 미국이 무관세로 협상을 타결할 의향이 있다는 징후가 많지 않다면서 관세 수용과 관련하여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 아울러 세계적으로 상업적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첨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7/17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소매판매, 연준 월러 이사 및 쿡 이사 발언
- 미국 7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지속되는 미국 달러화 약세 전망, 과도한 역거품 가능성 경계할 필요 - Reuters

(Popping the dollar's 'anti-bubble?')

- 올해 상반기 달러화지수는 10% 이상 급락했고, 이는 여타국과의 금리 차 확대, 안전자산 선호 등 전통적인 강세 여건 속에서 발생.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례적 현상이 정책 불확실성, 트럼프의 달러화 약세 유도, 해외 증시 호조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달러화 약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확산
- 반면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관론에 기반을 둔 '역거품(anti-bubble)' 가능성을 경고(HSBC). 달러화는 7월에 연초 이후의 하락폭을 2%p 줄이는 등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채금리 상승과 미국과 유럽의 금리 차 확대가 동반되는 있는데, 이는 과거처럼 재차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에 과도한 약세 전망에 주의가 요구

■ 최상의 미국 증시 분위기, 트럼프發 최악의 상황으로 반전 가능성 - 블룸버그

(Market Vibe Is as Good as It Gets, and That's Not Good)

- 미국 증시는 S&P500지수가 4월 저점 이후 25% 상승하는 등 긍정적 분위기 지속. 다만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는 4월 극심한 공포를 벗어나 최근에는 극도의 탐욕 수준으로 증시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제시. 이는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부과를 고려하지 않는 암묵적 합의가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증시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정책 관련 자신감을 높여 향후 교역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자극하고 '4월 해방의 날' 충격을 재현할 우려. 아울러 채권자경단 출현, 탐욕 수준의 투자자 심리, 연준의 독립성 훼손 불안, EU의 무역보복 가능성 등도 증시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소지

■ 연준의 정치적 종속, 의장 교체 시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역효과 발생 예상 - 블룸버그

(A Politically Captive Fed Would Be a Weak Fed)

- 트럼프는 금리인하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파월 의장에 불만 피력. 하지만, 연준 의장 교체 시 다음과 같은 부작용 예상. 첫째, 연준의 효과적인 이중책무(최대 고용과 물가안정) 이행 저해. 둘째, 급격한 금리인하로 인플레이션 증폭될 가능성
- 셋째, 단기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통제력 상실,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등을 반영하는 기간프리미엄 증가 및 장기금리 급등(차입비용 증가)으로 백악관의 국채금리 하락 유도와 상충. 넷째,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고통 증가. 역사적으로도 연준이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되면 다수의 부정적 결과를 유발

■ **미국 6월 관세發 인플레이션 징후, 수입 품목 중심 물가상승을 반영 - Financial Times**
(Tariff inflation arrives)

- 6월 근원 인플레이션(연율)은 2.9%로 시장 예상에 부합했으나 세부적으로는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포착. 가전·의류·가구 등 관세發 인플레이션의 선도 지표로 인식되는 근원상품 물가가 0.2% 상승
- 이는 기업이 재고 소진을 통해 관세 비용을 흡수하는 방식이 한계에 이르면서, 관세 영향이 본격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한편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세 위협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장단기 금리가 상승하는 등 반응도 점차 강화
- 관세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나 연준은 관세정책의 방향과 수준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를 무시할 수 없으며, 특히 노동시장이 약화되기 전까지 정책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연준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소지

■ **미국 금융시장 투자자, 성장 둔화가 아닌 인플레이션 위협 경계할 필요 - Financial Times**
(‘Fire’ is now the greater threat to investors than ‘ice’)

■ **미국 다국적 기업, 달러화 약세에 따른 이익 증가가 관세 충격 일부 상쇄할 전망 - Reuters**
(Battered dollar a boon for U.S. multinational compan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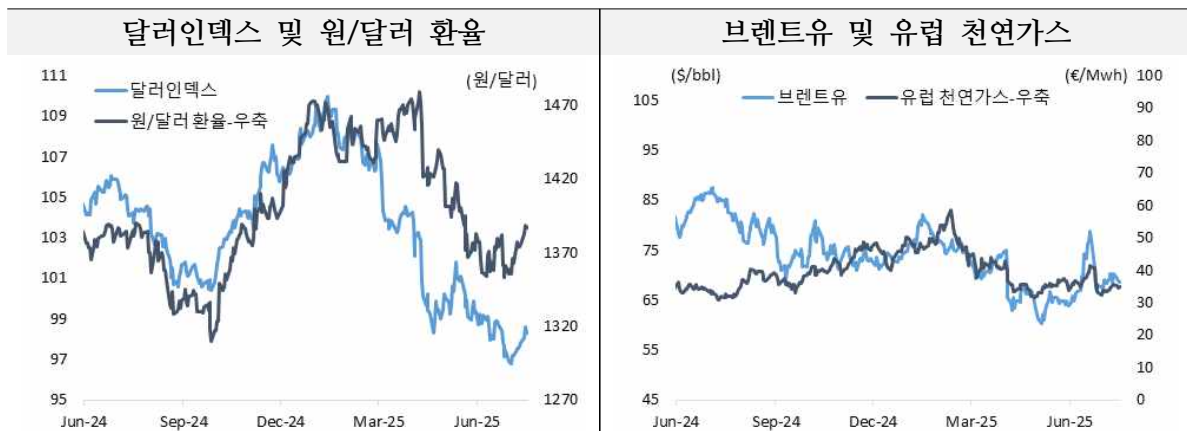
■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재정에 긍정적이나 자본이동 심화 유도할 소지 - The Economist**
(Stablecoins should cut America’s debt payments. But at what cost?)

■ **유로존, 美中 무역 공세 속 적극적 통상정책과 경기부양책 등이 요구 - 블룸버그**
(US Tariffs at 30%? C'mon, Europe... Do Somet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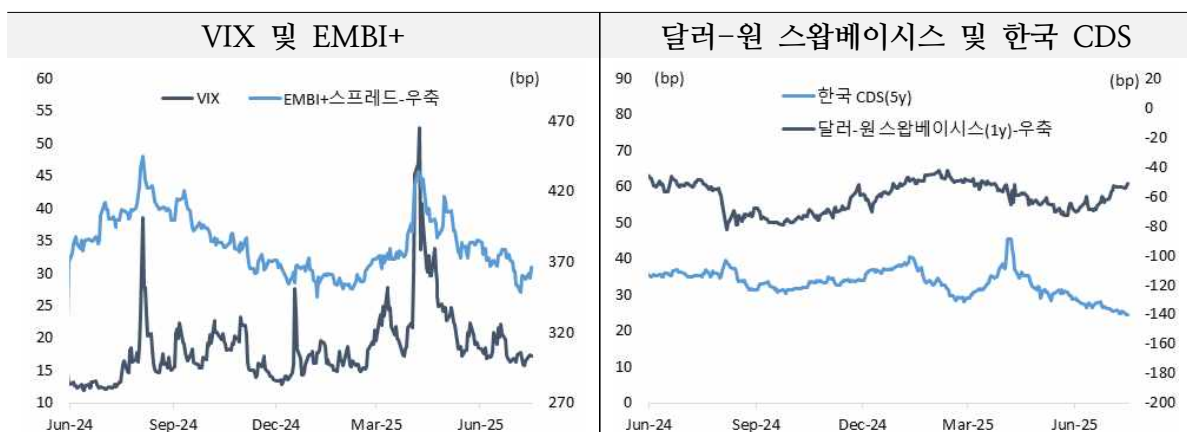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